

# 시립예술단 연말 공연 성찬에 초대합니다

문화  
예  
회  
관



‘호두까기 인형’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무용단 등 5개 시립 예술 단체가 올 한해를 정리하는 다양한 송년 공연을 준비했다. 공연장은 모두 광주문화회관이다.

광주시립무용단은 겨울이면 떠오르는 대표 발레 ‘호두까기 인형’(19~20일 오후 7시30분·대극장)을 무대에 올린다. 1997년부터 무용단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잡은 작품으로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호두까기 인형’은 독일 낭만파 작곡가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을 소재로 한 2막 발레 작품. 클라라가 크리스마스에 선물받은 호두까기 인형이 인간으로 변신하면서 그와 함께 과거 나라를 여행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각국의 다양한 춤 등이 어우러져 즐거움을 선사한다.

사랑 요정의 구운지, 왕자국의 강진구씨를 비롯해 조재욱·조현지·송관석씨 등이 출연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 김영연 부지휘자)이 라이브 협연하며 광주CBS 소년소녀합창단이 찬조출연한다.

같은 날 오후 7시30분 광주시립국악단은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명인·명창과 함께하는 송년 국악 한마당’을 연다. 이순자, 최연자, 이명희 명창이 ‘육자배기’ 등 남도소리를 들려주며 승무, 판소리 ‘춘향가’ 중 ‘천자 뒷풀이’, 설장구, 소고춤 등이 공연된다. 또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을 가야금병창과 기악 합주로 재구성한 ‘사랑 이야기’, ‘액막이 타령’, ‘판굿’ 등을 만날 수 있다.

20일 오후 7시30분에는 소극장에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송년음악회가 열린다. 국악 관현악으로 듣는 가요



신동원 씨



이수 씨

무용단, 19·20일 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극단, 20일 ‘명인·명창 국악한마당’

국악관현악단, 20일 국악 가요 등

소년소녀합창단, 28일 성탄 캐롤

교향악단, 30일 소프라노 박미자 협연

와 크리스마스 캐롤 등이 준비돼 있다.

노래 감사로도 잘 알려진 강형배씨가 ‘조각배’, ‘그 겨울의 찻집’을 부르며 이슬씨가 국악가요 ‘하늘의 별들의 꽃’ 등을 선사한다. 또 ‘이리랑’, ‘도라지’ 등 민요 연곡과 피리협연 관현악곡 ‘몽골의 고향’을 만날 수 있으며 피날레곡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루돌프 사슴구’ 등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다.

28일에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대극장에서 정기 공연을 갖는다. 김성국(광주교육대 교수)씨가 객원지휘를 맡았으며 빈스 클라리넷 앙상블과 사랑의 선율을 노래하는 남자들이 찬조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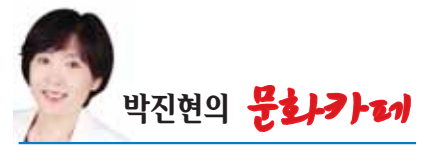
리비트의 미사 합창곡 ‘메스 페스티벌’과 ‘헝가리 무곡’ ‘터키 행진곡’, ‘꿈의 궁전 찾아서’ 등을 들려준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송년음악회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김영연 부지휘자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으로 문을 열며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 새벽과 지그프리트의 라인 여행’ 마지막장, 차이코프스키의 발레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등을 연주한다.

소프라노 박미자(이화여대 교수)씨와 최근 세계 4대 오페라 극장으로 꼽히는 영국 로열 오페라 코벤트 가든에서 ‘아이디’의 라다메스 역으로 웨비한 테너 신동원씨가 출연한다. 연주곡은 푸치니의 ‘라 보엠’ 중 ‘그대의 찬송’,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희의 문화카레

“한 장 한 장 넘겨보니/숫자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살아온 날들은 빈 겹질처럼/희로애락만 남겨놓고 저만치 흘러갔다/선물 받은 축복의 시간들/기쁘고 신나고 즐거워야 하는데/막상 계란 열두 판을 받고 보니/흐뭇함보다는 겨울이라 그런지 마음이 시리다...”(한상숙의 ‘새해달력을 받고’ 중에서)

매년 이맘때면 누구나 새해 달력을 선물 받는 즐거움을 누린다. 며칠 전에도 기자가 근무하는 편집국으로 대학교와 기업체에서 달력을 보내와 하나씩 나눠가졌다. 12개국의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진 모 기업의 달력은 순

도의 수려한 풍광을 즐기는 덩을 누렸다.

사실 달력 속 풍경들은 메마른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청량제역할도 한다. 이런 이유로 아름다운 자연을 화폭에 담은 화가들의 작품은 달력의 소재로 인기가 많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불황 여파로 지역작가들의 2014년 ‘달력특수’가 거의 실종됐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의 ‘노스텔지어-남도작가 12인 특별전’(12일~22일)의 출품작들을 모아 제작한 달력이 주목받고 있다. 달력 속에는 강연균·강운·김대원·김영삼·서기

## 2014년 캘린더를 받고...

식간에 동났다. 간편하게 일정을 체크할 수 있는 휴대전화 때문에 달력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더니 꼭 그런 것도 아니었다. 아마도 짧게는 하루, 길게는 1년을 설계하고 기억하게 하는 ‘아날로그 감성’ 때문이 아닌가 싶다.

기차역 달력 날짜 밑에 일정이나 계획을 적는 게 더 편한 ‘구식’이다. 그러다 보니 집이나 사무실 책상에는 손때가 묻은 달력이 서너 개나 된다. 그중에서도 올 한해 가장 가까이했던 건 거실 장식장 위에 놓여있는 사진작가 김영갑의 캘린더다.

올 초 제주도의 두모악켄리에서 구입한 이 달력에는 지난 2005년 투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난 김씨가 20년 동안 카메라 앵글에 담은 제주도의 비경들이 펼쳐져 있다. 한 장 한 장 달력을 넘길 때마다 제주

문·손봉채·손장삼·우재길·이이남·한희원·황영성·황재영 등 지역작가 12명의 작품이 담겨 있다. 작가들의 예술적 정서나 상상력의 원천이 된 고향, 가족의 소중함, 과거에 대한 그리움 등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아마도 달력을 받아든 사람들은 아름다운 남도를 보며 감동을 살계하는 ‘행복한 고민’을 할 것이다.

이처럼 새해 달력을 늘 희망과 설렘, 목표와 다짐으로 풍성하다. 하지만, 달랑 한 장만 남은 이맘때가 되면 후회와 탄식이 배어 난다. 연초에 끊었던 장밋빛 미래는 가물가물할 뿐이다. 언제부턴가는 아예 ‘습관적으로’ 한 달력을 떼고 새 달력을 건다. 2014년 캘린더의 빈 칸에 무엇을 채울지, 한번쯤 생각해보기다.

(편집국장·문화선임기자)

## 광주여성재단, 오늘 여성가족정책 포럼

광주시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이 18일 오후 2시 제2차 광주여성가족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2013 광주여성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결과’가 발표된다.

행사는 전남대학교 이정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흥미희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소장의 ‘인천광역시 여성행복 연구사례 및 향후 방안’

기조발제가 예정돼 있다.

행사에서는 취업준비 미혼여성, 위경남, 전업주부, 경력단절 후 재취업여성 등 각계 여성 7인의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광주여성가족정책포럼’은 지역여성들의 현실에 기반한 정책개발과 의제발굴을 목표로 진행되는 행사다. 문의 광주여성재단 정책연구소 062-670-052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亞문화전당 성공 위한 제안

亞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 종합연구서 발간

광주지역 학계, 문화·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발전방향과 콘텐츠 분석한 종합연구서가 발간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위원장 정동채)과 전남대유라시아연구소(소장 류재한)는 17일 ‘복합문화

시설과 콘텐츠’(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연구총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서는 광주의 시각에서 문화전당에 담긴 콘텐츠(전시·공연 프로그램 등)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최초의 결과물이다.

105쪽 분량의 책에는 ‘문화융성 정책과 광주’(박호재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을 위한 제안’(류재한),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전당의 미래’(정성구 아시아문화학회 기획이사), 싱가포르 에스플라네이드와 콘텐츠(박진희 광주일보 편집국부장) 등의 연구결과가 수록돼 있다.

집필자들은 문화전당 콘텐츠는 ‘대중성·경제성·향유성’을 바탕으로 구축돼야 하며, 문화인프라는 해당 도시의 고유의 환경과 정체성, 역사적 맥락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성공한다는 사례 등을 제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창업 31주년 K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이탈리안 뷔페 아이엘리시아

80여가지의 다양한 이탈리아 메뉴 온가족이 마음껏 휘황에 맞게 드실 수 있는 프리미엄 이탈리안 뷔페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룸완비)



- Steak 이용요금(별도판매)
1. 포크 Steak 8,000원
  2. 락스비 Steak 9,000원
  3. 비프 Steak 10,000원

구분	영업시간	성인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7세)
평일	11:30~22:00	15,500원	9,000원	6,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19,500원	12,000원	8,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볼골레 Bulgolle ₩10,800

크랜베리 디아블로 홀로 스테이크 Cranberry Diabolo polo steak ₩10,800



블루베리 덴버프록 스테이크 Blueberry Denver pork steak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